

## 아름다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파

현대사회는 다양한 곳에서 도움이 손길을 필요로 한다. 그중에서도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은 정말 간절하면서도 제대로 해내줄 사람이 드물다. 대표적으로 간병인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이어 갈로 벽의 천사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나이팅게일이다. 대구시 치매 및 노인전문병원에서 간병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현남 씨를 만나 간병사의 일상을 들여보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병동에 근무하는 간병사 이현남입니다. 처음 학원의 소개로 병원 문을 들어섰을 때 간병이라는 것이 그저 어르신들에게 대환나 해드리고 손잡고 나들이해 드리려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남들이 하는 사업이 불안되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자녀들이 한창 공부하는 시기라 제가 간병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부딪히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과 달리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근무한 지 두 달 쯤 되었을 때 이젠 한계라는 생각에 갈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이때에 5층 여러 간병사님들이 조언도 해주고 이런저런 도움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두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친정 오빠도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병원일도 적응하는 과정이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던 때인데 개인적인 우환까지 겹쳐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의 격려어린 마음씀씀이를 보고 다시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되었고, 여기서는 내 마음을 다 하여도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병사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마음을 비우고 정성을 다해서 어르신들을 보살피 드려도 고마워하시기 어렵게 당시 혼자 육신히고 끝없는 요구사항과 무시하거나 화낼 때도 많았고, 서운한 밤을 한마디에 혼자서 눈을 삼킬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위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니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게 해주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월급 받아서 서운해서 공부하는 아들한테 용돈을 보내주면 어김없이 문자로 '어머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답장도 보내오고 말도 할

말에 한 번의 족지 편지를 써서 제 가방에 넣어둘 때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참아 내시면서 하루하루를 버려내시는지...

야간 근무 시 모두가 잠든 밤 2층에서 들려오는 고향 소리는 아들, 딸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이고 살아달라고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정말 불쌍하기도 하고 우리들의 미래인 것 같고 조용히 눈을 감고 많은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가족들끼리도 사랑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리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어떤 가족은 우리도 몰라왔다 일곱면 내미는 가족, 어떤 가족은 맛있는 음식을, 어떤 가족은 흰떡도 운동을 시켜 드리고, 특히 어떤 가족은 부모의 흔적을 남기시고 기록도 하시면서 살아가면서 힘들 때 부모님의 힘이 고마웠다고 인사하시는 모습, 손자는 장난감 비행기도 만들어 주면서 할아버지의 가르침으로 반듯하게 잘 왔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은 한 평생을 사시면서 수많은 고통과 좌절, 행복과 기쁨도 있었기에 훌륭한 자식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쓴맛, 짠맛, 떼운맛을 다 이겨내면 언젠가는 달콤한 세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속에서도 은은하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있기에 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굳게 마음먹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시간을 내어 거의 매일 출근차 지켜주는 남편이 고맙고 힘이 납니다. 또 각 부서별 많은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병원 직원들을 보면 서로 격려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르신들께도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